



##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 외연 확장

### ‘글로벌 뷰티 기업’ 코스맥스와 협약... 바이오분야 R&D 조성·기술 동향 공유 김관영 도지사 “바이오 특화단지 관련 오가노이드 공동 연구개발 분야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뷰티 기업인 코스맥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과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사진 3면)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코스맥스 회장 대표이사,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

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최경식 이사장(남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코스맥스 그룹은 글로벌 뷰티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전문생산, 화장품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연구·개발·생산·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업체는 전북자치도 바이오특화단지 선도기업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사와 공동 연구를 통해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줄기세포에 성장인자를 주

입해 두피 모사체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며, 향후 고도화된 오가노이드 개발을 통해 자사 소재 효능을 더욱 정교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북자치도 바이오 특화단지와 연계한 연구개발 및 관련사업 교류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국내·외 주요 바이오기업 기술 동향 공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류 등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 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은 한국식품연구원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등 코스맥스의 주요사업분야와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한 오가노이드 공동 연구개발 분야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경 코스맥스 대표이사는 “코스맥스는 전북바이오특화단지와 협업을 통해 화장품 및 바이오 부문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을 고도화하고,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도내 농업계열 학생 300여명 실력 뽐낸다

### 전북영농학생축제, 오늘 전주생명과학고서 도내 직업계고 농업계열 11개 학교 참여 전공경진·실무경진 등 5개 분야 20개 종목

도내 농업계열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실력을 뽐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1일 '제53년차 전북영농학생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FFK(한국영농학생회)전북지부와 (사)한국농업교육협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농업에 꿈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직업계고 농업계열 11개교 학생과 교사 300여명이 참여해 전공지식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회 분야로는 △농업 지식·기술을 뽐내는 전공경진 △실무능력을 겨루는 실무경진 △경영 능력 및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과제 이

수 △글로벌리더십 △FFK 골든벨 등 5개 분야 20개 종목이다.  
1등급(금상) 20명과 2등급(은상) 31명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상을, 3등급(동상) 51명에게는 지부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오는 9월 25~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3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전북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영농학생축제는 명실공히 미래세대 한국농업의 주역인 학생들의 배움과 나눔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흘린 땀의 노력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농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걸고 당당하게 경연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호남권 유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정식 개소

### 전주 예수병원서 문 열어 소아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공백 최소화 기대

전주 예수병원에 호남권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로써 소아청소년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생명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응급 치료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9시 예수병원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비롯해 예수병원 고영환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수병원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제정받아 개소식 이전인 지난 4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기간 동안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세 이하의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 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센터는 소아 응급환자 7병상·소아 중증응급환자 2병상·소아처치실·소아 음압격리 병상·일반격리 병상 등 총 12실의 소아 전용 병상을 확보했으



20일 오전 9시 전주 예수병원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신충식 예수병원장을 비롯해 예수병원 고영환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간호사 13명 등 전담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됐다.”며 “앞으로 우리 전북을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소아 청소년에게 특화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김호권 예수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예수병원은 지방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겠

다.”고 성정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예수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외에도 도내에는 소아 경증 응급환자를 위한 대자인병원(전주시 우아동), 다솔아동병원(전주시 효자동),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전주시 평화동), 믿음병원(김제시),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부안군) 등 달빛어린이병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소년체전 전북 선수단 1208명 출전

### 선수 785명·임원 423명 등 대회는 25~28일 전남 일원서 육상·수영 등 총 36개 종목

전북 체육의 미래인 꿈나무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인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전북에서는 1,208명(선수 785명·임원 423명)이 출전, 선의 경쟁을 펼친다.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유도, 검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등 총 36개 종목이 펼쳐지며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뉘어 경기가 열린다.  
전북체육회의 전력분석 결과 전북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80개 이상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역도 등 체급·개인 종목에서

다관왕 배출을 비롯해 다수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대전추천 결과 축구와 야구, 소프트 테니스, 배구 등 단체종목에서의 메달 사냥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분석 결과 2~3위권 종목에서도 선전을 해준다면 더 많은 메달도 가능하다.  
본 경기에 앞서 진행 된 사전경기(체초)에서 전북 선수단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상태다.  
전북자치도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지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이 전북을 대표해 출전하는만큼 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며 “성적도 중요하지만 부상없이 경기장에서 정정당당 후회없는 경기를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